

국가적 위기의 시대-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의정단상



박원중
전남도의원

최근의 대한민국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로 국가적 기로이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대통령을 향한 체포영장 발부,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항공사고 등 사상 초유의 사건들로 사회적 혼란이 높고 있으며, 지속되는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마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 복합적으로 국가체계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다른 아닌 사회적 약자들이다.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경제적 혼란과 행정적 부재는 그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십 년간 무적자로 살아온 이 모 씨가 지역 복지기관과 행정당국의 협력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신분 회복 후 의료 혜택과 직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이제서야 내 인생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무적자들에게 법적 신분 회복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에서 나아가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새로운 삶의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허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국민에게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정부에 가깝다는 정부 지도층의 부재와 보호받기 힘든 이들에게 먼저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망각은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행정을 낳았으며 이

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듯 국가적 대 혼란 속에서도 베풀어지는 국민의 따뜻한 선행은 우리 사회가 마냥 절망 속을 걷고 있지만은 않은 듯 세상에 희망을 밝혀주고 있다.

폐지를 모아 기부금을 마련하는 가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스스로 돕는 시민들, 재난 속의 선결제 문화를 이룩한 시민 의식, 그리고 본업을 잠시 쉬며 묵묵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 사회가 가진 가능성과 따뜻함을 크게 보여주었다.

현대에 디지털화되고 복잡해진 사회에서 법적 신분은 단순한 행정적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누구에게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 자체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누락, 행정 기록 부재, 열악한 양육환경 등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이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들은 무관심과 무대응 속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져 가고 있다. 있어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명 ‘무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전라남도 내에도 정확한 조사가 없어 수치로 나타낼 수 없겠으나 무적자가 절대 적지 않으며, 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 의료,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에게 개인의 삶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이용당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갖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적자가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즉, 삶의 질

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나아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형법상 무적자에 대한 처벌은 있어도 이들의 제도권 포함에 대한 절차는 여전히 어렵고 까다롭기만 하다. 현재 사회에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무적자 신분 회복 등을 위해 ‘창성창본’과 같은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적자들에게 대한 보호는 행정적 지원만이 아닌 정부, 지방정부, 주민, 민간단체에까지 이르는 전 공동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더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국가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모두 힘들지만,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사회 전체의 보호와 책임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쩌면 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에 관한 관심은 개인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는 더욱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한다. 모든 일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행동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는 노력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전해줄 사회인 것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살맛 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희망의 공동체,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나간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2025년은 단순히 새해가 아니라,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해로 만들어 가야 한다. 작은 관심이 모여 만드는 사회의 큰 변화,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이용한 논설실장

社說

‘여객기 참사 회복’ 돕는 일 적극 나서야

광주시,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참사로 여행 취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의 손길을 내민 건 환영할 일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유족·국회·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1229마음센터 공간 마련’과 관광업계 피해 대책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지원, 유가족 포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 공간 마련, 참사로 큰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다.

‘1229마음센터’는 현재 전일빌딩 245 건물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유족들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방안도 나왔다. 시는 다음 주부터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관광업계 피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소상공인 특별보증 50억원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관광업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행 취소 사례가 10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유가족부터 시민까지 일상 회복을 돕는 일에 광주시가 적극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강 시장은 특별법 추진에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희생자의 보이지 않는 유서”라고 표현했다. 치유공간에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수시로 만나 소소한 일을 함께한다면 일상 회복도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 노력 말고도 정부와 정치권도 나서 준다면 유족과 시민의 일상 회복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양극화 시대 꼭 필요한 저수지 준설

전남 올해 39곳 전국 최다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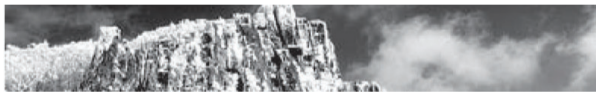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올해 저수지 준설사업에 전남이 39곳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국비 확보액도 160억 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았다.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름철 집중 호우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존의 저수지를 준설해 ‘물 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 선정된 저수지는 우기 전 준설이 가능하고 퇴적비율이 높으면서 수해면적이 넓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다. 지역별로는 영광이 8곳으로 가장 많고, 구례 7곳, 해남 6곳, 나주 5곳, 장성 3곳, 순천·고흥·진도 각 2곳, 곡성·보성·화순·함평 각 1곳이다.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지사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수지 준설은 퇴적으로 저수용량이 부족한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39곳의 준설이 마무리되면 총 90만㎡의 저수용량이 확대된다. 안정적인 영농 급수와 함께 수질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물은 생명이다. 특히 농도인 전남에서 물은 농업생산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남은 역대급 가뭄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무려 281일 동안 이어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은 농업뿐 아니라 주민의 생활에까지 큰 피해를 안겼고, 2023년에는 주암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20%까지 떨어지며 물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구례 하천제방 범람이나 2023년 장마철 피해도 제때 준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저수지가 적정량의 강우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영농기 이전 준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신규 저수지를 발굴해 전체의 ‘물 그릇’을 키우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대형 관정 개발이나 해수담수화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독한 기후 양극화 시대, 적정량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키는 길이다.

서석대



“1000가지 용도를 지닌 인류 문명을 바꿀 기적이다.” 1924년 어느 날 벨기에 출신 화학자이면서 미국 기업가 리오 헨드릭 베이클랜드가 실험실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 축음기 판과 장식품 등 폭발적 수요로 공급이 부족하던 천연수지 셀락의 대체 소재를 연구하던 그는 그날도 폐놀과 포름알데히드를 다양한 온도와 압력에서 가공하는 실험을 했고, 어느 순간 두 물질이 안정적인 물질로 합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열에 타지 않고,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다 값까지 저렴한 소재. 인류 역사상 처음 탄생한 합성 플라스틱이었다.

플라스틱의 발견은 그야말로 인류에게 기적이었다.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농·수산물 건축, 자동차·비행기, 통신, 의료, 스포츠까지 지난 100년간 인류의 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었고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금도 플라스틱은 인간 생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공산품의 50%가 플라스틱과 조합돼 있다. 식품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을 플라스틱 없이 생산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만약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인류는 더 많은 지하 자원과 산림자원을 훼손시키고, 지금과 같은 문화생활은커녕 식량 확보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천연자원의 대체 물질로 자연의 훼손을 줄이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불과 100년만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썩지 않는다’는 장점은 결국 썩지 않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불러왔고, 가벼우면서 물에 녹지 않는다는 강점은 바다 수질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지구를 뒤덮을 정도의 양도 문제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3억 5300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재활용 된 것은 9%인 3400만톤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100개 가운데 91개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끔찍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 연구팀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의 물질을 개발했다. 경북대 김경진 교수와 CJ제일제당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바이오 촉매 30여 종 가운데 분해 효율이 가장 높은 ‘쿠부’를 개량한 것으로 자연에서 유기물이 썩는 것처럼 생명촉매가 1kg의 플라스틱을 분해해 8시간 내 90%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없다. 오염과 축적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상징이면서 재앙으로 전락한 플라스틱의 폐해를 쿠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100년 동안 인류의 문명을 바꿔왔지만 지금은 인류의 필요악으로 전락한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의 미래를 바꿀 100년만에 찾아온 또 다른 기적이 반갑다.

100년 만의 기적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